

영세 상인 임대 지원...도심 활성화 꿈꾼다

정읍 태평로 건물주협의회 10년 사용권·임대료 보장 순천시 청년상인 임대료 지원 영업 안정 통해 상권 활성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 영세 상권을 보호하면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12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시 태평로 건물주 협의회는 이날 '태평로 상가 임대료 안정화 협약식'을 체결하고 상가를 빌려 쓰는 상인에게 최소 10년간 사용 권한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임대료를 현재 시점에서 10년간 동결하고 이후 인상률도 9% 이하에서 정하기로 했다. 태평로 상가의 20개 건물, 34개 점포 가운데 11개 건물, 18개 점포의 건물주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임대료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상권의 활성화도 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읍시는 앞서, 지난해 4월 새암로 상권, 지난 2월 평화차거리 상권 건물주들과도 비슷한 내용의 협약을 한 바 있다. 정읍



정읍시는 12일 태평로 건물주 협의회와 태평로 상가 임대료 안정화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을 계기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 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최근 순천 도심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내걸고 문을 연 '청년 100' 가게 앞에서 청년·순천시 관계자 등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시는 남은 주요 상권인 중앙로와 연지동 일대의 건물주들에 대해서도 협약 참여를 설득할 계획이다.

순천시 시민로 중앙시장과 상동초교 인근 건물 2곳에 동지를 둔 청년창업 쉼터지 스툴 '청년 100'도 지역민과 순천시, 청년들의 고민과 열정으로 만든 공간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최대 중심가였지만 광양과 순천 신대지구에 생긴 대형 아울렛과 할인마트로 일대 아웃도어용품점 등이 무더기로 빠져나가면서 도심 공동화가 빚어지던 상황, 주민들은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민들은 보증금을 얹고 5년 간 임대료(100만원)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순천시도 임대료의 60%를 지원하며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 상인들을 모집해 상가를 채우는데 힘을 보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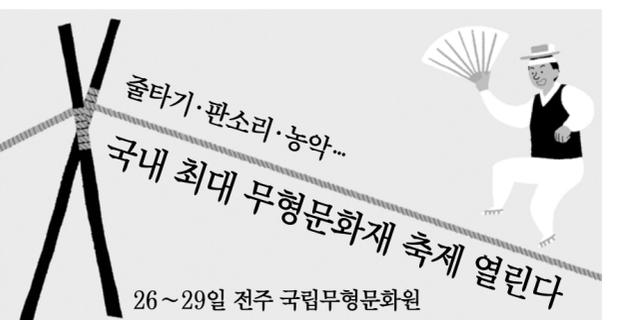
이들 청년들도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100'의 열정으로 100개 점포를 만들어 청년들의 든든한 백(100)이 되겠다'는 공동체적 슬로건을 내걸고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6명의 젊은이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맞춤형 여성 의류매장, 꽃과 어우러진 플라워 카페, 빈티지 제품을 판매

하는 상점, 젊은 감성이 가득한 스테이크 전문점, 건강식 이류식과 친환경 로컬푸드를 활용한 간식 판매점, 순천 관광지를 그려놓은 수제초콜릿·계절과일 판매점 등 젊음의 감성으로 가득한 가게를 내놓고 손님들을 만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영세 상인들은 안정적으로 영업하고, 건물주들은 점포가 비어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순천=김은중기자 ejkim@kwangju.co.kr



전해오는 전통 기술과 예술인 무형 문화재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2017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무형문화재대전의 이번 주제는 '대대손손'(代代孫孫)으로, 선조가 물려준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자는 취지다.

세부 행사는 전시, 공연, 체험, 학술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10여 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시 중에는 인간문화재 100여 명이 만든 작품 250여 점을 선보이는 '국가무형문화재관', 국가무형문화재를 종목별로 설명하고 전승 과정을 영상과 그래픽 등 시각자료로 표

현한 '주재관' 등이 눈길을 끈다. 공연 프로그램은 더욱 풍성하다. 남궁연 감독이 연출한 '시간의 단면'은 전통 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보여주는 작품이다. 무형문화재 이수자들과 함께 국립발레단 단원, 밴드 크라이닉이 무대에 오른다.

이외 강강술래·아리랑·택견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합동 공연과 소멸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소개하는 공연도 펼쳐진다.

아울러 전통 팔찌와 손거울 만들기, 처용무와 강강술래 배우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무형문화재 전문가들이 무형문화재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1회 세계 무형문화재 포럼'도 개최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

최고의 명창 한 자리에 '대한민국 판소리축제'

14~15일 고창서 열려

국내 최고의 명창들이 한 무대에 오르는 '2017 대한민국 판소리축제'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고창군 고창읍성과 동리극야당에서 열린다.

동리 신재효 선생 탄생 20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송순섭, 김일구, 정순임, 조통달, 유영애, 왕기석, 이난초 등 당대 최고의 명창들이 총출동해 판소리의 진수를 보여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인 신영희 명창과 그의 제자들은 춘향이 완창에 도전한다.

거문고 산조의 김무길, 아쟁의 이태백 등 국악 분야의 명인들도 자리를 함께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신재효 선생을 제념해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송순섭, 김일구, 정순임, 조통달, 유영애, 왕기석, 이난초 등 당대 최고의 명창들이 총출동해 판소리의 진수를 보여준다."

/고창=박형진기자 phj@

"미래 슈퍼스타 다 모여라"

정읍 메이플스타 오디션

22일 정읍시 문화공원

미래의 스타를 발굴하는 스타오디션 페스티벌인 '제 1회 메이플스타'가 오는 22일 정읍시 정읍시문화공원에서 열린다.

대회는 춤과 노래 실력을 겨루는 케이팝(K-POP) 부문, 개그 부문, 연기

부문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승자에게는 K-스타 방송의 K-STAR 뮤직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를 준다.

현재 서류와 동영상 심사를 통해 1차 예선 합격자를 선발했으며 오는 12일과 13일에 2차 예선을 치른다.

정읍시 관계자는 "재능이 있는데도 마땅히 도전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청소년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진도 관매도 메밀꽃 축제로 힐링여행 오세요

내일 개막...체험·즐길거리 다양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의 진도 관매도에 메밀꽃 축제가 14일 열린다.

23ha 크기의 메밀밭을 중심으로 이틀간 이어지는 축제는 체험마당, 장터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체험마당에서는 메밀묵, 메밀떡, 메밀과자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웃놀이와 제기차기 등 관광객들과 하나 되는 전통 민속놀이 등도 즐길 수 있다. 장터마당에서는 관매도에서 생산된 토

과 미역 등 지역 농수산물 판매하는 로컬푸드 장터가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또 축제 참가자들 모두 메밀가루와 메밀차 등도 맛볼 수 있다.

관매도는 진도항(평목항)에서 여객선으로 1시간 30분 정도 거리다.

진도군 관계자는 12일 "일상에 지친 관람객들에게 아주 좋은 힐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형진기자 hypark@

해남 대흥사 4계절 산사체험

내일 가을프로그램 시작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해남 대흥사가 자연과 문화 자원을 4계절 콘텐트로 구성한 산사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해남군과 공동으로 14~15일 '추(秋), 붉은 단풍 속 초의선사의 만남'을 주제로 문을 연다.

대흥사 일지암에 은거했던 다성(茶聖) 초의선사의 사상과 차 문화 관련 강의, 대흥사와 일지암 답사, 다포 만들기, 다식과 차 체험 등으로 꾸며진다.

다음달에는 겨울 프로그램 '동(冬), 북미락암마애여래좌상에 말을 걸다'가 이어진다.

국보 308호인 북미락암마애여래좌상을 주제로 산사 음악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봄과 여름 주제는 각각 '춘(春), 푸릇푸릇 돌아오는 호국의 열정', '하(夏), 국곡유수 물에 취하다'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산·전원주택

- 장성 북하면 장성호 백암사 인근 2803㎡ 환경좋은 1억3천
- 화순 동북면 가수리 2175㎡ 은행 2300 요양주택 질 적합 4800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평안한 분위기 1억4500
- 장성 북하면 백암들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원도 약산대지 1266㎡ 주택 27평과 별채 황토방 산 12393㎡ 포함 1억8천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안10년합 4억
- 화순읍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여평도 사용 복층주택 60여평 판백나무 준공 갤러리·커피숍·식당 적합 3억8천

투자·매도·교환

- 남구 임암동 상업지 주차장부지 890㎡ 투자에 양호 34억
- 북구 양산동 대지 1317㎡ 빌라·다세대적합 10억3천
- 영암 삼호읍 땅 1212㎡ 건물 925㎡ 은행2억5천 매도4억3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담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신축중인 아파트단지 입구 상가분양

- 북구 양산동 아파트 1584세대 입구 상가 22평형~80평형 상가 분양, 상담 바랍니다

상가건물

- 계림동 상업지 대지 106㎡ 복층건물 122㎡ 식당·카페적합 1억6600
- 농성동 4차선대지 132㎡ 건평 237㎡ 은행 2억5천 매도 6억4천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평 997㎡ 병원·식육 등 적합 24억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동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매

- 영암 삼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사가 2억3천 매도 1억7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안근 1억7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평 971㎡ 27실 6억7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전원주택, 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h3>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h3>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h3>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h3>수완지구 아파트 매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